

1987. 2 월간 컴퓨터학습

편집후기

丁卯年에는 送舊迎新이라는 단어가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다는 의미보다 사람을 보내고 맞았다는 의미가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이 新春에 곁을 떠나는 여러 사람들의 앞 길에 찬란한 햇별이 쬐이기를, 그리고 새 사람들에게는 마음껏 나래를 활짝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鍾—

밤 9시 홍스튜디오 문을 나서면 서, 토요일 9시 회사문을 나서면서 오히려 가슴뿌듯한 행복감이 밀려오는 것은?

어디에 있으나 일손을 놓지 못하리라는 예감이 든다. 「컴퓨터뮤직」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컴퓨터 뮤직의 개념을 이해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던가. 그러나 완성된 글을 보고 나면 역시 허무해지기는 매일반.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姜〉

순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미련한 것일까.

임상병리학 보고서 같고, 이즈러진 사회의 모순들로 채워진 소설들을 보면, 본래의 궤도를 벗어난 듯 싶다. 순수해야 할 예술조차도 이리한테 그 나머지야... 이 혼탁함 속에서 그래도 말간 소수의 순백같은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은 컴퓨터학습 밖에 없다.

* *

개구리와 여자는 털 곳을 예측못한다고 했지만, 2월호 작업에서의 내 모습이 꼭 개구리였다. 그에 대한 평가는 독자들이 내리리라.

〈海〉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기운이 아무리 떨어져도 반짝이는 눈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 어깨를 펴고 하늘을 보며 힘있게 이 겨울을 보낼 수 있다. 봄도 멀지 않으리라.

〈香〉

입사한 지 한달도 안되었습니다. 아직은 수습기자인데 명함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

면을 통해 나의 이야기를 쓰게 될 줄은.....

문학을 얘기하고 인생을 얘기하던 대학시절이 왠지 그림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전공과는 무관한 컴퓨터와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컴퓨터를 아십니까?” 그것은 무한한 매력을 지닌 것일거예요.

〈美〉

작년말, 유리속의 인형처럼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무력감이 엄습하곤 했던 텅 빈 시간들이 있었다. 그 후 해를 바꾸며 보낸 한달은, 내가 쓴 원고가 활자화되어 나오는 희열속에 참으로 새로움이 무엇인가를 알게해 준 귀한 날들이 되었고, 새로운 만남을 위한 넓은 가슴을 갖게 해주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수많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한가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정열을 키워야겠다.

또다른 신선함을 기대하며 2월을 맞이해 본다.

〈教〉

광고색인

광화문 O.A시스템.....	100, 101
경우시스템.....	화보 17
극동시스템.....	화보 12
금성마그네테크.....	화보 3
금성통신.....	화보 2
대우전자.....	표 4
동화컴퓨터.....	139
롯데제과.....	표 3
삼미컴퓨터.....	화보 15
삼성전자.....	화보 1
삼성출판사.....	화보 14
서울마이컴학원.....	111
소프트빌리지.....	화보 4
스타텍소프트.....	화보 13

아프로만.....	화보 24
왕컴퓨터.....	131
종로서적사무기기상사.....	화보 22, 23
컴퓨터타운.....	접지뒤
태광실업.....	화보 19
태양컴퓨터.....	화보 8, 9
PROSOFT.....	화보 7
하림전자.....	화보 5
한국문연.....	102
한국쓰리엠.....	표 2
한국실리콘.....	84
한국컴퓨터학원.....	103
한국퍼스컴전자.....	화보 6
화신컴퓨터사업부.....	112

발행 겸 편집인/민경현, 인쇄인/김운규, 등록년월일/1983년 7월 28일, 등록번호/라-2781, 인쇄일/1987년 1월 31일, 발행일/1987년 2월 1일, 제5권 제2호 통권 40호, 지로 번호 3000272, 대체계좌/서울중앙우체국 010017-31-1001346, 발행소/주식회사 민컴 서울·마포구 서교동 393-4, 전화/333-4101~5, 333-4106, 인쇄소/삼성출판인쇄주식회사, 사진식자/창미문화사

값 2,500원

■ 본지는 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